

현장과 시각

공항문제, 지역싸움 돼서야



홍행기 시회2부 차장

전남의 숙원이던 무안국제공항이 우여곡절 끝에 개항을 맞는가 했더니 여기에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빼다 주는 문제가 지역 사회의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광주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8일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공항에서 운항키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의 국내선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무안공항 개항대비 지원협의회'에서 개항 다음날인 11월9일부터 곧바로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에서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의 국내선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광주공항의 국내·국제선 기능이 모두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지역 관광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광주시의 격렬한 대응에 대해 논란이 또 다른 당사자인 전남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국가 중장기 항공정책에 따라 무안공항으로 모든 기능이 이전될 텐데, 괜히 굳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 한 관계자는 광주시의 반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묻는 기자에게 "국제선을 광주에 놓아두려면 뭐하러 수천억원을 들여 무안국제공항을 짓고,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를 건설했느냐"며 "우리(전남도)가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국제공항'은 호남의 중심 도시로서 관광과 수출의 거점 공항이 필요한 광주와, J프로젝트 및 F1국제자동차대회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남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반시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북지역에서 동부권 국제공항 건설을, 전북에서는 김제공항 건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무안공항은 신규 항공수요를 제때 창출하지 못하고 '식물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의 갈등으로 화하는 일은 여러서는 일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대로 광주·전남은 한 뿌리다. 정부가 정한 틀 속에 갇혀 양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

/redplane@kwangju.co.kr

구도심 활성화 적극 나서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광주공항 국제선 준치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24일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시정 질문에서는 구 도심 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 음식물자원화 시설, 상무소 각종 자금 운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또 이날 '광주공항 국제선 기 능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 보냈다.

◇구 도심 활성화 대책=서인봉 의원(대통령합선당·동구1)은 "도심 외형 확장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광주 구(舊) 도심권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주·야간 인구격차가 날로 커지는 등 전형적인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11.7%로 광산구(6.0%)의 2배에 육박해 도심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반시설 미비와 노후, 상대적으로 낮은 응적률과 높은 건폐율로 주거지로서 매력은 상실되고 상업·업무시설 또한 이용상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과 합리적인 구간 경제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가 국비 27억원을 들여 추

진한 총장로 특화거리조성사업도 도로 바닥 석재가 값싼 수입산으로 사용되고 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등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2년 도심활성화기획단을 발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유재산 관리 부실"=서 의원은 "광주시의 공유재산 토지는 3만436필지에 55.7km, 건물 등까지 포함하면 평가액만 5조2천200억원에 이르는데 이같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 준비를 위해 주무부서에 공유재산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 때부터 각 실과가 현황과약에 나서는가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재산관리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김월출 의원(민주·서구4)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공공시설은 1당 4만5천원, 민간기업인 삼승처리시설은 5만7천원으로 1당 1만2천원가량 비차 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 위탁처리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지 말고 제3의 부지에 처리시설을 설치해 환경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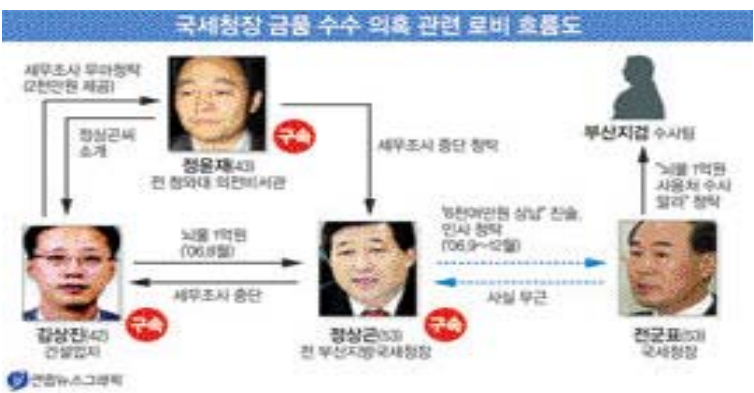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재위탁 여부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면서 "제3의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환경시설공단 위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낮잠 자는 소각장 기금=김 의원은 "광주 상무소각장 반입 수수료를 통해 2001년부터 조성된 20억6천여만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영협의회의 구성 지연으로 수년째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특히 시는 주변 영향지역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라는 문구에 집착해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은 "그동안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해달라고 1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으나 의회측이 '시와 주민대표위간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면 새로운 갈등이 예견돼 소송 종료 때까지 선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구성이 늦어졌다"며 "최근 서구의회에서 소각장 주변 300m이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표 선정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상근씨 건넨 6,000만원 돈의 성격은



'지방청장 유임' 로비한듯

분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전보...청탁 실패

정상근(53·구속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군포 국세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6천만원의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사안 세무조사 관련 대가는 아닌 듯=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6천만원을 4~5차례에 걸쳐 나눠 준 데다 시기도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상당한 긴 기간이어서 김상진씨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상납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일 전군포 국세청장이 김씨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정 전 청장이 1억원을 받은 직후 한꺼번에 돈을 줬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사청탁·관행 유력=정 전 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자신에 대한 인사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1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부임한 정 전 청장은 부임직후부터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자신의 인사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2월28일 이뤄진 인사에서 부산청장과 같은 급이지만 국세청 분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라는 그다지 요직이 아닌 보직으로 전보돼 '인사청탁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청장이 전군포 국세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 인사실과에 대한 감정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시 용퇴설이 나돌던 정 전 청장이 분청에 입성한 자체만으로도 로비는 성공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검찰에서 흘러나온 여러가지 발인을 종합해 보면 정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돈을 준 것은 일단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일시, 횟수, 전달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뇌물의 특성상 현금이 오가는 데다 목격자도 없는 '폐쇄성' 때문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운동, 폭탄주, 커피, 그림퍼즐...

케이블TV 스토리온, 한미 역대대통령 스트레스 해소법 공개

케이블TV 스토리온의 스타 가십 프로그램인 '케버스토리'는 25일 밤 11시 한국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개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낚시와 맨손체조, 테니스를 즐겼고 나무장작을 패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음주와 노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걸리에 맥주를 섞은 '원조 폭탄주'를 마셨고 피아노와 기타 등의 음악 연주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

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커피를 마시거나 커피 겸을 애용했다고 한다. 하루에 커피를 10잔까지 마실 정도였다고 소개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은 우유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컨디션을 조절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골프장을 찾아 스트레스를 풀었고, 부시 현 대통령은 유명 운동선수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즐기면서 해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뇌물 국세청' 항의 시위

시민단체 활빈단 소속의 홍정식씨가 24일 오후 전군포 국세청장의 수뢰의혹과 관련, 국세청 로비에서 직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항의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노조 중복감사 시정 요청

전남도교육청 노동조합은 2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회를 방문해 "도교육청 감사 때 시·군교육청을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 노조는 "광양·구례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와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정책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도의회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등 이중삼중의 중복감사에 매달려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역교육청 감사는 현지조사 형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eye drops. The ad features a woman holding a child and text in Korean: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A mother's hand is a medicine hand! A mother's hand is 'love'). It also lists benefits for various eye condition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Kyuten.